

가습기 특위, 피해자 구제책도 없이 종료

‘정부 사과’ 명시·감사 청구 요구 등 여야 이견 못 좁혀 활동 연장 與 반대에 무산...피해가족들 특위 재구성 촉구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가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4일 종료되면서 정치권이 민생의 아픔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가습기 특위가 진상규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될 결과를 도출했을 뿐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특위 활동 연장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최종 보고서도 여야가 협의를 이루지 못해 추가 협의를 거치는 조건부로 채택됐다.

국회 가습기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되 문구 정리를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 측 위원들은 정부 차원의 사과 요구 등의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이 이에 반대하면서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지게 됐다. 정부 상대 시정 요구 사항은 ▲정부 차원의 사과 ▲가습기살균제 ‘세퓨’ 사용자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SK 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가습기살균제 관련 부처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이다.

특위는 지난 7월 7일부터 90일 동안의 기한을 갖고 활동을 벌여 왔다. 야당 측은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해 왔으나 여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며 결국 90일째인 이날 공식 활동을 마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가습기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대책,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규명에는 성과를 냈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위 연장에 반대한 새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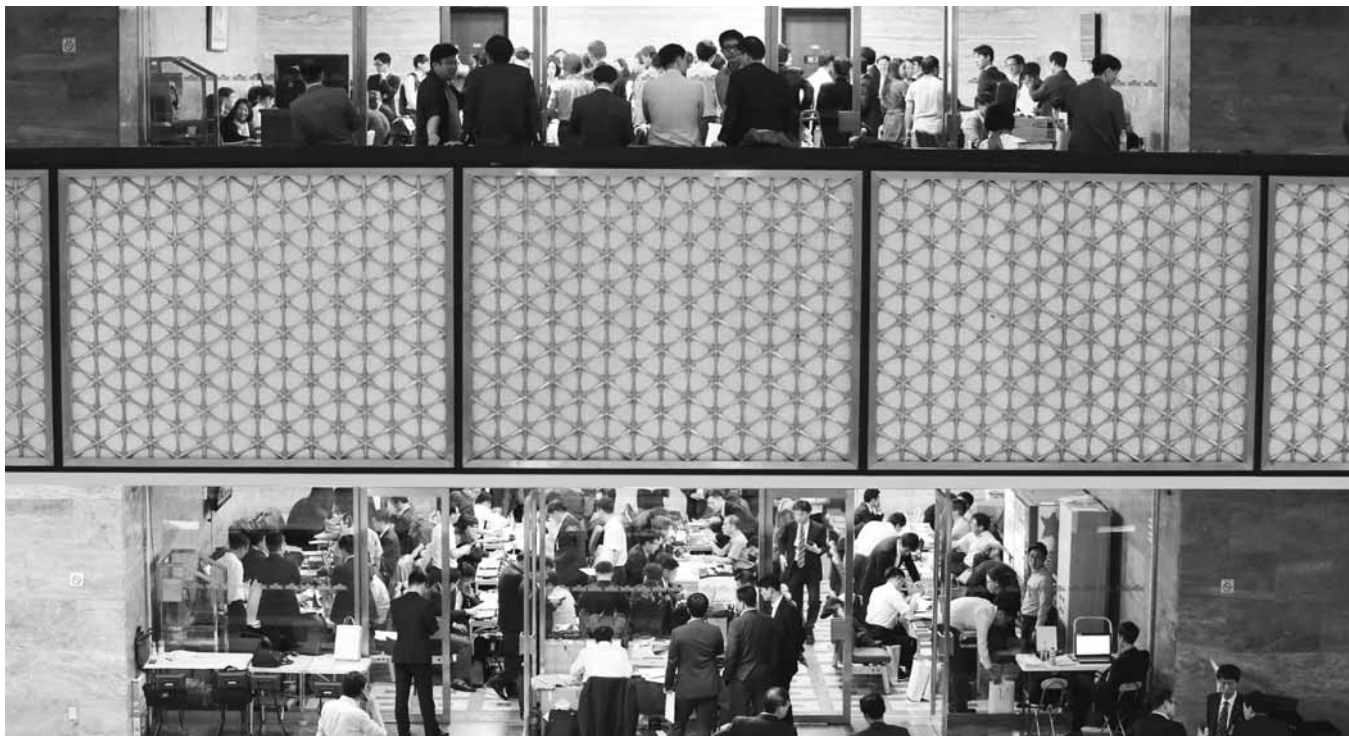
당에 눈총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담당 상임위원 환경노동위원회로 공을 넘겨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특위 연장이나 특위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위 활동으로 가습기 참사의 실체에 조금 접근하고 역시 영국 본사의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특별법 제정 등 피해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국

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외면 말고, 특위 기간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 활동이 종료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국민의 안전마저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국회를 보며 희망을 잃었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에 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복귀...분주해진 국감장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에 불참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4일 오전 국감에 복귀했다. 이날 국감이 정상화되며 국회 본청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3野 ‘백남기 특검’ 공조...방법·시기엔 온도차

상설 특검 vs 별도 특검·법안 발의 시기 의견 분분

국회가 4일부터 정상 가동된 가운데 야(野) 3당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특검 추진을 본격화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특검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고 공조를 위한 원내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 등에 각론에선 조금씩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특검 방법과 관련해 더민주당은 상설특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아침 원내회의에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자꾸 법을 내는 것보다 기존 제도 안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특검 주장은 동

의하는데 법을 따로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별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운영일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감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 3당이 공동발의하고자 한다”며 별도 특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회에서 “새누리당이 특검을 당장 수용하지 않으면 야 3당이 특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 특검이나 별도 특검이냐에 따라서 추진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야 3당 합의를 거쳐 5일에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민주당은 아직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백씨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을 특검 범위에 포함할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민주당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우선 복지위에서 증인체택을 했고 상임위에서 한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운영일 의원은 “사인이 병사(病死)로 나온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며 “이해를 안 가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다루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정현 점차 건강 회복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일주일 간의 단식투쟁을 벌이다 지난 2일 일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완만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4일 오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한 이 대표를 문병하고 와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줘 감사하다”면서 “국감에 전념해달라”고 말했다고 박 사무총장은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아침에 대표 병실에 다녀왔는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국회에 복귀하면 민생 현장을 더 부지런히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전남 농기계 사고 3년간 1391건...전국 최다”

더민주 이기호

전남지역이 농기계 안전사고 최다 발생지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호(당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에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463건 ▲2014년 428건 ▲2015년 500건 등 3년 새 139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됐다.

이 의원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선 정부와 농기계 제조회사의 연구개발(R&D) 확대 투자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지역별로는 1391건 중 전남이 19.7%(275건)로 가장 많았고, 경북 18.8%(262건), 경남 11.8%(165건), 충남 9.9%(138건) 순으로

“연구개발특구재단 잦은 인사, 사업 부실 초래”

국민의당 김경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이 지나치게 잦은 인사발령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체 직원 108명 중 지난 3년간 9차례 85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돼, 기관장의 지나친 인사



권 행사에 의한 ‘조직내 쫓겨나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구 이사장이 지난 3년간 지나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쫓겨나고 특정 인물에 힘이 집중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그 결과 특구 조직과 사업은 꺾어졌다”며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관광공사, 자회사 성과급 880억 부당 지급”

국민의당 송기석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GKL)가 정부의 예산 사용지침과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성과급 880억원을 부당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의원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



월까지 4급 이하 직원에게 성과 평가결과 없이 성과급 860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임원과 1·2급 상위직 관리자들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지만, GKL은 임원과 상위직 관리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으며 액수는 20억 2912만원에 달했다.

“광주과기원 정교수 172명 중 여성은 1명 뿐”

새누리 민경욱

광주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여성 정교수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인 과학기술특성화대학 4곳으로부터 받은 ‘대학별 여성 정교수 현황’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작년까지 여성 정교수가 1명도 없다가 올해 1명을 채용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전체 정교수는 172명으로 여성 정교수의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4개교의 전체 정교수는 1164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정교수는 101명으로 8.7%에 그쳤다.

민 의원은 “국가연구기관들이 우수한 여성연구원들을 채용하고 활용하기 위해 해선 그 토양이 되는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이 능력 있는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